

표준 초보자들이 흔히 겪는 실수

이현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 이동통신 PD



지금은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무대에서 선도국으로 인정받는 기술 분야가 많이 생겼지만, 신생 기술 분야, 기초 기술 분야,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기술 분야 등에서는 아직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우리가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표준 전문가의 육성과 국제 무대 진출이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표준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실수 사례를 알아보고 신참 표준 전사들이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본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주변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로써 표준활동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지만 한때는 이동통신계를 주름잡았던 A회사의 사례로, 표준회의에서 이 회사 참석자가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반대한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회사 참석자였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은 단말기 사업부 출신이고, 다른 사람은 인프라 사업부 출신이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이슈였던 것이었다. 개별 기술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종합적인 기술을 다루는 국제 표준 무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사업부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되거나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준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회사의 경우는 아마도 과도한 내부 경쟁이 있었거나 또는 불충분한 내부 조율 절차 때문에 초래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한동안 A사의 위신을 깎아내린 사례로 회자되었다.

B사의 참석자는 기술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꽤 높은 권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기해 초기에는 여러모로 기대받는 기술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표준회의의 참석자들의 너리에서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만 관심을 둘 뿐 해당 기술의 전후좌우 이슈에는 도무지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본인이 담당한 분야에서 IPR 획득과 관련된 분야에만 관심을 둘 뿐, 규격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인 작업, 타 작업반과의 조율 등 IPR 획득과는 무관하나 표준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작업에는 거의 참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회사 또는 참석자는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외되기 마련이므로 특히 처음 표준활동을 접하는 사람들은 깊숙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활동은 규격작업 초기에는 기술적인 경쟁작업이지만 중반에는 정치적인 절충작업이 이어지고 막판에는 예술적인 조율작업으로 승화된다. 결국 규격작업의 진도가 나아갈수록 기술적인 우열보다는 참석자들(특히 해당 기술의 규격작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친소에 따라서 결론이 판가름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업무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C

사의 한 참석자는 회의 때 반대의견을 표시한 같은 나라의 타사 참석자에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항의했을 뿐 아니라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이 참석자는 표준회의의 논의에서 점차 소외되었고 결국 표준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회의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회의 끝나고 저녁 식사 때는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는 패턴에 익숙해져야 수명이 오래가는 표준전문가가 될 수 있다.

표준기구마다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차원에서는 합의(consensus)로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위기구에서 표결(voting)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찬성이 많더라도 소수의 반대자가 있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표준 전문가는 반대를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에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인데, 반면에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찬성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안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는 노력보다는 예상되는 부정적 질문 또는 공격에 대비해 예상답안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역공을 준비하는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이나 호수의 독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독의 중간에 균열이 있으면 물이 새서 독이 무너지게 마련이듯 말이다.

표준활동은 기술전쟁을 넘어서 정치이고 예술이다. 이 무대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표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표준인력양성과 표준역량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내부 조율, 부분적이 아닌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 긴밀한 인간관계 구축, 그리고 정교한 표준 대응전술 등이 표준 전사들이 실수하지 않고 익혀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